

광주 전통시장, 손님맞이 준비 멀었다

외국인 방문 느는데 곳곳 악취 풍기고 닭·오리 도축 모습 노출 전통상품 판매소도 없어...수영대회 코앞 환경개선 서둘러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광주를 찾은 선수단 등 방문객들이 전통시장을 찾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시장 곳곳에서 악취가 풍기고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이 철창 안에 갇혀 있다가 도축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어서이다.

8일 오전 방문한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닭전길에도 오물로 뒤덮인 닭·오리 철창이 상당수 널려 있었다. 높이 50cm 철창은 칸에 따라 닭, 오리, 청둥오리 등이 갇혀 있었다. 한 상인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특성상 흐르는 물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없지만, 남광주 시장의 경우 구조상 배수 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열악

한 배수시설 자체를 정비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남광주 시장은 경기운영위원 등이 머무르는 조선대 기숙사와 1km 떨어져 있고 도시철도 남광주 시장역과 인접하고 있는 곳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재래시장 중 한 곳이다. 특히 주말이면 ‘남광주밤기차야시장’이 개장하면서 수많은 외지 방문객이 찾고 있다.

이날 장날은 맞은 광산구 송정5일장과 북구 말바우시장 등도 상황은 비슷했다. 불결한 닭·오리 판매업소들이 눈에 띄었고, 양동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 입구부터 풍겨오는 악취 때문에 많은 방문객들이 손으로 코를 막았다.

시민 김민지(여·33·동구 지산동)씨는 “재래시장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닭이나 오리를 도축해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최소한 철창 안 동물을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이라도 설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 재래시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외국인들이 선물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공예품 등 전통 상품 판매소가 없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혔다.

그나마 동구 대인시장과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의 사정은 나은 편이었다. 양동시장이나 남광주 시장과 달리 수산물 코너 통행로도 물기 없이 깨끗하게 정비돼 있었다. 곳곳에는 공예품 판매 공간도 운영되고 있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수영대회를 맞아 광주를 찾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전통 문화를 느끼기 위해 재래시장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도축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시설을 깨끗하게 정비해 광주 도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북구 3인조 영아 인질 강도 인터넷에서 만나 범행 공모했다

대낮에 영아를 인질로 삼아 아이의 부모로부터 돈을 빼앗은 인질강도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인터넷을 통해 범행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북부경찰은 “아파트에 침입해 돌이 갓 지난 유아를 돌보고 있던 A(여·45)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조모(30·서울)·김모(34·목포)·한모(27·광주)씨 등 3명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조씨 등 일당은 모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알게 됐다. 조씨는 카페 게시판에 “돈만 되면 뭐든 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한모(27)씨도 ‘돈이 급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김씨는 조씨와 한씨에게 연락을 해 범행 하루전인 3일 광주에서 만나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무더위에 현관문을 열어두고 방충망 문을 설치한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범행 모의 하루 뒤인 4일 정오 무렵 광주시 북구 운

암동의 복도형 아파트를 찾아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이날 오후 1시께 김씨는 밖에서 망을 보고, 모자·마스크를 쓴 조씨·한씨가 생후 16개월 남아를 돌보던 어머니 A씨가 있는 집에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1800만원(귀금속·카드 대출·현금서비스 등)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스포츠 도박, 비트코인 투자실패, 대출 등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한탕을 노리고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서로 통화를 하지 않은 채 외국에 서버를 둔 SNS 채팅 어플만 이용했고, 도주 때는 경찰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택시와 버스를 이용해 광주·전남·전북지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흩어졌다가 모였다는 반박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두환 1심 선고 해 넘길 듯 헬기 조종사 13명 증인 신청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이어 변호인측에서 헬기 조종사 13명에 대해 추가 증인신문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재판은 8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씨는 지난 3월 11일 재판에 출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4명 중 3명이 관련 증언을 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지목된 부대에 근무했던 조종사 13명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하고 추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인측 증인신문에만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일부는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헬기 사격을 했는지 묻고자 한다고 해도 당시 복무한 모든 조종사를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판사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어도 변호인이 묻고 싶은 사항이 있을 텐데 필요하면 증인신문을 하겠다. 다만 헬기 사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검찰 답변과 같은 내용이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하겠다”고 조율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공무직 차별 철폐” 식발식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공무직노동자 퇴직금제도 개선과 차별 철폐를 위한 집단 식발 및 집중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식발식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비정한 남편 구속

추가 폭행 여부 등 조사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3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영암경찰은 8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

내를 폭행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추가됐으며,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만인 지난날 25일에도 머리와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차를 타고 부모님 집에 다녀오는 길에 “(평소에)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며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베트남에서 출산한 아들이 자기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베트남에 찾아갔을 때도 아내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조사 과정에서 털어놓기도 했다.

경찰은 이 부분을 포함해 추가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해경, 출하 직전 전북 절도 20대 남녀 검거

완도해경은 8일 해상 가두리양식장에서 선박 등을 이용해 수차례 전북을 훔친 A(24)씨, B(여·22)씨 2명(광주일보 2019년 6월 26일자 6면)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완도군 약산·신지면 일대 전북 양식장에서 출하를 앞둔 전북(6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평소 알고 지내던 A씨 등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고를 겪던 중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범행 횡수,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 총괄 본부장

김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고 전남도 전문위원, 도 출연기관 감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농림부에 성 비위 상임감사 직무정지 요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성 비위 문제와 관련된 상임감사의 직무 정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aT는 “지난 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김모 상임감사의 직무 정지를 당일 농식품부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9일 오후 차관 주재로 심의를 열어 김 감사에 대한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뒤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한다.

노조는 지난 달 24일 온라인 사내 게시판에 성명을 발표하고 “김 감사가 지난 해 2월 상임감사로 임명된 뒤 지속적으로 여성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김성준 SBS 전 앵커, 지하철 ‘몰카’ 혐의에 사직

○-SBS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불법촬영 한 혐의를 받고 있는 SBSTV 간판 앵커 출신 김성준(56) 논설위원을 사직 처리.

○-8일 서울 영등포경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 논설

위원은 지난 3일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논설위원은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자 범행을 시인.

/연합뉴스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660㎡, 건평: 83㎡, 매매가: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3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91749802 point

874214002 point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